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산업의 수급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 | |
|----------------------------|----|
| Executive Summary | i |
| 1. 개 요 | 1 |
| 2. 연령별 소비구조 특성 | 2 |
| 3.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 4 |
| 4. 시사점 | 9 |
| 【HRI 경제 통계】 | 12 |

< 요약 >

■ 개요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출산을 하락,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다. 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향후 소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령별 소비 특성

(평균소비성향)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근로 세대일 때 소비를 줄여 자산을 모으고 노후에 그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중장년층 보다 높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커 중장년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고령층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해 평균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아 연령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품목별 소비구조) 고령층은 소득 여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낮은 반면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 소비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고령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등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50대의 장년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의식주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낮았다. 20대 이하 가구는 교통, 음식·숙박에 대한 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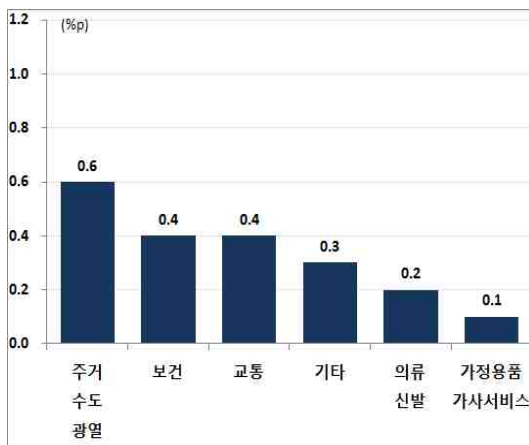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의 변화에 따른 인구효과와 가계의 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미래에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였다.

(소비지출 비중 증가 품목) 인구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첫째, 주거·수도·광열은 고령화 영향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수도·광열은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11.6%에서 2020년 12.2%로 0.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소득에서 주택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도 상대적으로 많아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보전은 인구의 평균 연령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 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보전은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6.8%에서 2020년 7.2%로 0.4%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고령화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겠지만 향후 가계들의 소득 증가는 이들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지출 비중 감소 품목)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첫째, 교육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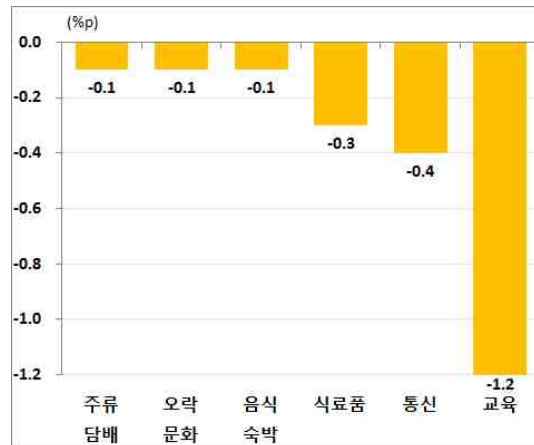
교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재화이지만 인구구조상 학령인구의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지출 비중은 2013년 10.5%에서 2020년 9.3%로 1.2%p 감소할 것이다. 둘째,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등은 인구 고령화가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요인에 따른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지출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지출 비중은 2013년 14.2%에서 2020년 13.9%로 0.3%p 감소하며, 주류·담배는 동기간 1.2%에서 1.1%로 0.1%p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지출 비중은 외식과 문화생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 가구의 특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문화의 지출 비중은 2013년 5.6%에서 2020년 5.5%로 0.1%p 감소하며, 음식·숙박은 동기간 12.9%에서 12.8%로 0.1%p 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신비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가 동시에 지출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비의 경우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6.1%에서 2020년 5.7%로 0.4%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지출 비중 증가 품목 >



주 : 2013년대비 2020년 비중 증감.

< 소비지출 비중 감소 품목 >



주 : 2013년대비 2020년 비중 증감.

■ 시사점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거비, 보건비 등의 부담이 늘고 재화의 수요 변화로 새로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지출 품목별로 수요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 고령화로 보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고령 가구의 보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고령화가 진전되면 향후 경제성장률이 고령친화산업 산업의 성장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분야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1. 개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며 가계의 소비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갈 것으로 보임

-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 인구가 경제의 핵심 소비층으로 등장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출산율 하락,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¹⁾에서 고령사회로는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는 9년이 소요되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
- 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는 향후 소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연령대별로 소비의 상품별 구성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고령인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은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이들의 소비가 적은 부분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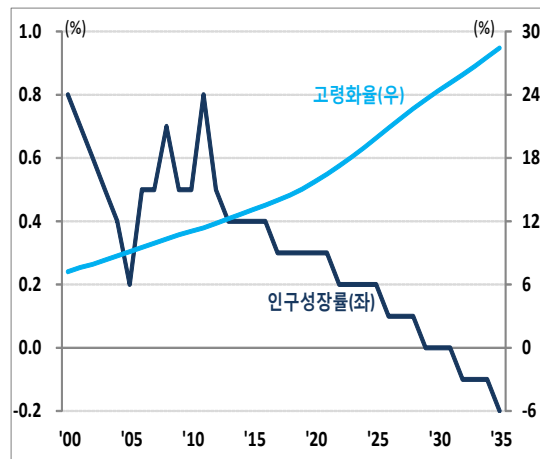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

<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

| | 도달년도 | | |
|-----|-------------|-----------------|----------------|
| | 고령화사회 7% | 고령사회 14% | 초고령사회 20% |
| 미국 | 1942년 | 2014년 (72년) | 2030년 (16년) |
| 영국 | 1929년 | 1975년 (46년) | 2025년 (50년) |
| 독일 | 1932년 | 1972년 (40년) | 2008년 (36년) |
| 프랑스 | 1864년 | 1978년 (114년) | 2019년 (41년) |
| 일본 | 1970년 | 1995년 (25년) | 2006년 (11년) |
| 한국 | 2000년 | 2017년 (17년) | 2026년 (9년) |

자료 : 통계청, UN.
 주 1) %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주 2) 괄호 안은 소요년수.

< 고령화율 및 인구성장률 전망 >



자료 : 통계청.
 주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총 인구).

1)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2. 연령별 소비구조 특성

○ 고령 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등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중장년층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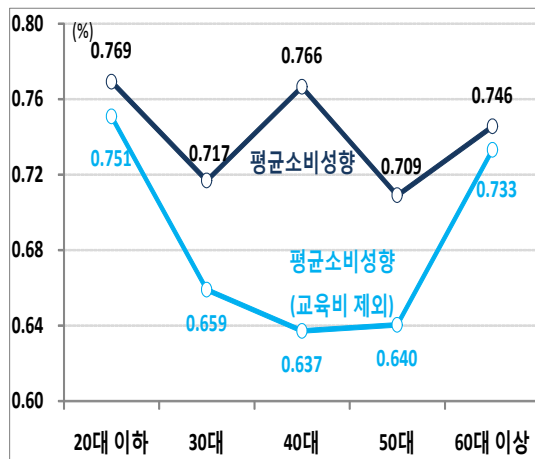
-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고령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고령층의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개인은 근로 세대일 때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그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중장년층보다 높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출 부담이 커 중장년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높고 고령층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해 평균소비성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 60대 이상 고령층은 소득 여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낮은 반면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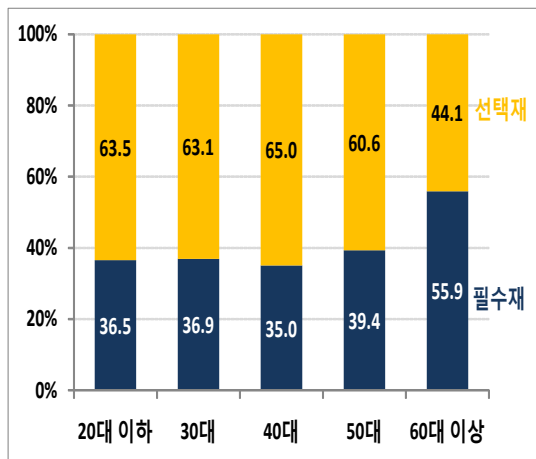
-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55.9%로서 매우 높은 반면 선택재 비중은 44.1%로 낮았음
-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은 선택재의 소비 비중이 60%대로 높았으며 필수재의 소비 비중은 30%대임

< 연령별 평균소비성향(2013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연령별 필수재, 선택재 비중(2013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2) 필수재(Necessities)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재화. 선택재(Luxurious)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재화. 구체적으로 필수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보건, 통신 등이며 선택재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임.

- 60대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등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타 연령층에 비해 육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특성으로 의료에 관련된 지출 비중이 높았음
 - 고령층 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았으며 교통, 교육, 의복에 관한 소비 지출은 적었음
 - 고령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30~50대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의식주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낮았음
 - 30~50대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4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전체 소비 지출 중 16.9% 이었음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비 등 의식주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대 이하 가구는 교통, 음식·숙박에 대한 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교통에 관련된 지출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나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대 이하 가구는 상대적으로 잦은 외식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는 낮은 반면 음식·숙박의 소비 지출 비중이 높았음

<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2013년) >

| | (%) | | | | | |
|------------|------|--------|------|------|------|--------|
| | 전체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식료품·비주류음료 | 14.2 | 9.6 | 12.8 | 12.8 | 13.5 | 21.0 |
| 주류·담배 | 1.2 | 1.3 | 1.2 | 1.0 | 1.3 | 1.4 |
| 의류·신발 | 6.7 | 8.0 | 7.4 | 6.8 | 6.9 | 5.4 |
| 주거·수도·광열 | 11.6 | 13.3 | 10.9 | 9.6 | 11.5 | 17.1 |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4.0 | 4.8 | 5.1 | 3.5 | 3.5 | 4.2 |
| 보건 | 6.8 | 5.5 | 6.0 | 5.5 | 6.4 | 11.7 |
| 교통 | 12.2 | 17.2 | 13.4 | 11.8 | 13.1 | 9.6 |
| 통신 | 6.1 | 6.8 | 5.9 | 6.2 | 6.7 | 4.8 |
| 오락·문화 | 5.6 | 6.5 | 6.6 | 5.6 | 5.1 | 5.0 |
| 교육 | 10.5 | 2.4 | 8.1 | 16.9 | 9.7 | 1.7 |
| 음식·숙박 | 12.9 | 15.4 | 13.3 | 13.1 | 13.7 | 10.1 |
| 기타 | 8.2 | 9.1 | 9.2 | 7.2 | 8.7 | 8.0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3.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1) 인구구조 전망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 가구가 늘고 1인 가구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연장, 출산을 저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음

· 한국은 2015년 고령인구 비중이 13.1%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의 초입에 와 있으며 2017년(14.0%)에는 고령사회 진입, 2026년(20.8%)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

- 이에 따라 향후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60대 이상의 가구로 구성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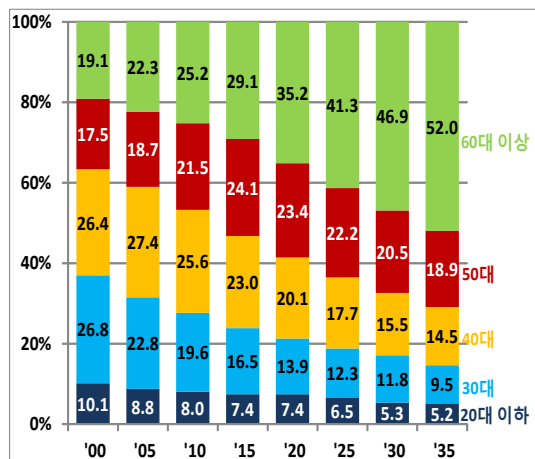
· 연령별 가구주 구성비는 60대 이상 가구가 2014년 28.1%에서 2020년 35.2%, 2030년에는 46.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30~50대 가구는 2014년 64.5%에서 2020년 57.4%, 2030년 4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한편 가구주 중 1인 가구 비중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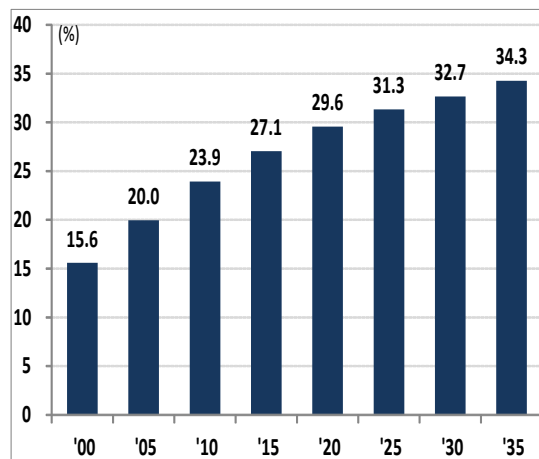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4년 26.5%, 2020년 29.6%, 2030년 32.7%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연령별 가구주 구성비 전망 >



자료 : 통계청.

< 1인 가구 비중 전망 >



자료 : 통계청.

2) 소비구조 전망

① 소비 전망 모형

○ 인구구조와 소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화의 수요를 전망

- 분석모형은 OECD(2005년)³⁾의 재화의 수요 전망(Projected deman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가계주 연령별로 처분가능소득, 평균소비성향, 품목별 소비 비중과 가구원수 전망, 가구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각 재화의 수요 변화를 전망
 - 추정 기간은 현재부터 2020년까지이며 2013년 대비 2020년 재화의 소비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상

< 재화의 수요전망 분석모형 >

$$\text{품목별 수요}_t = \sum_i (\text{처분가능소득})_{it} \times \left(\frac{\text{소비}}{\text{처분가능소득}} \right)_i \times \left(\frac{\text{품목별 소비}}{\text{소비}} \right)_{it} \times \text{가구수}_{it}$$

① 소득 ② 평균소비성향 ③ 품목별 소비 비중 ④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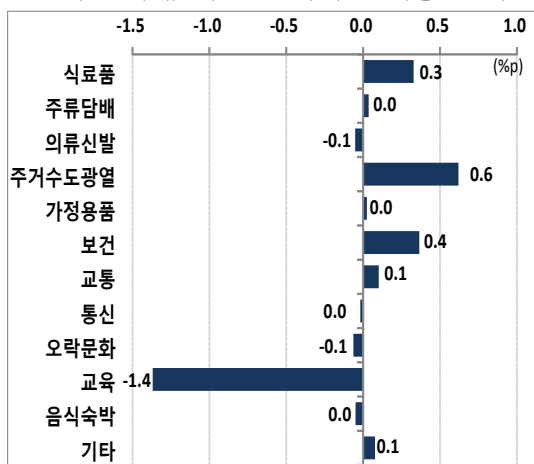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의 변화에 따른 인구효과와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득 효과를 추정
 - 각 재화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품목별 소비 비중의 변화를 추정하고 가구주 연령 변화 등 인구효과를 고려
 - 인구효과란 가구주 연령 변화가 품목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인구고령화로 고령 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재화는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소비가 적은 부분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득효과란 가구의 소득 변화가 품목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가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선택재의 소비 비중은 늘지만 필수재의 소비 비중은 감소
- 인구효과와 소득효과를 결합하여 미래에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
 - 재화의 특성에 따라 인구효과와 소득효과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이 상이하므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

3) OECD(2005),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

② 소비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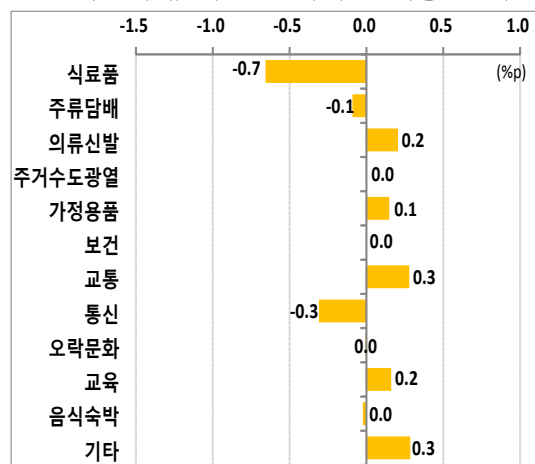
- 인구효과만을 고려하면 주거·수도·광열, 보건, 식료품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효과만을 고려하면 교통, 교육, 의류·신발 등 지출 비중이 늘 것으로 예상
- 인구효과만을 고려하면 주거·수도·광열, 보건, 식료품 등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교육의 경우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 고령층일수록 에너지 소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 주거·수도·광열비의 소비지출 비중은 0.6%p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건강에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령층의 특성으로 보건비에 대한 지출은 0.4%p 증가하고 식료품의 지출 역시 0.3%p 늘 것으로 보임
 - 학령인구⁴⁾의 감소로 교육비 지출의 비중은 -1.4%p 감소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오락·문화(-0.1%p), 의류·신발(-0.1%p)에 대한 지출도 줄 것으로 보임
- 소득효과만을 고려하면 교통, 교육, 의류·신발 등 선택재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식료품, 통신 등 필수재의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소득 증가로 교통, 교육, 의류·신발 등 소비지출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20년 각각 0.3%p, 0.2%p, 0.2%p 늘어날 전망
 - 이에 반하여 식료품, 통신 등의 소비지출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20년 각각 0.7%p,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구효과에 따른 소비지출 비중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인구효과만을 고려한 2020년과 2013년 소비비중 변화.

< 소득효과에 따른 소비지출 비중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소득효과만을 고려한 2020년과 2013년 소비비중 변화.

4) 교육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 인구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소비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 보건,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증가가 예상되며, 교육,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오락·문화, 음식·숙박, 통신 등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고령층은 소득에서 주택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도 상대적으로 많아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 주거·수도·광열은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11.6%에서 2020년 12.2%로 0.6%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주거비 등 의식주 관련 지출 비중은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주거비 등 지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
 - 인구의 평균 연령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보건의료는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6.8%에서 2020년 7.2%로 0.4%p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 관련 재화는 고령화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겠지만 향후 가계들의 소득 증가는 이들에 대한 지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
 -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의 소비지출 비중은 2013년 대비 2020년에 각각 0.2%p, 0.2%p,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의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할 전망
 - 교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재화이지만 인구구조상 학령인구의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전체 지출 비중이 감소
 - 교육비 비중은 2013년 10.5%에서 2020년 9.3%로 1.2%p 감소하여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는 인구 고령화가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요인에 따른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지출 비중은 줄 것으로 예상
 - 식료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이며 엔겔계수⁵⁾가 이를 나타냄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지출 비중은 2013년 14.2%에서 2020년 13.9%로 0.3%p 감소하며, 주류·담배는 동기간 1.2%에서 1.1%로 0.1%p 줄 것으로 보임
- 문화생활이 적고 외식보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을 선호하는 고령 가구의 특성으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오락·문화의 지출 비중은 2013년 5.6%에서 2020년 5.5%로 0.1%p 감소하며, 음식·숙박은 동기간 12.9%에서 12.8%로 0.1%p 줄 것으로 보임
- 통신비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가 동시에 지출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통신비의 경우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6.1%에서 2020년 5.7%로 0.4%p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

(% , %p)

| | 2013년 | 2015년(E) | 2020년(E) | 증감 |
|------------|-------|----------|----------|------|
| 식료품·비주류음료 | 14.2 | 14.0 | 13.9 | -0.3 |
| 주류·담배 | 1.2 | 1.2 | 1.1 | -0.1 |
| 의류·신발 | 6.7 | 6.8 | 6.9 | 0.2 |
| 주거·수도·광열 | 11.6 | 11.9 | 12.2 | 0.6 |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4.0 | 4.0 | 4.1 | 0.1 |
| 보건 | 6.8 | 6.9 | 7.2 | 0.4 |
| 교통 | 12.2 | 12.5 | 12.6 | 0.4 |
| 통신 | 6.1 | 6.0 | 5.7 | -0.4 |
| 오락·문화 | 5.6 | 5.6 | 5.5 | -0.1 |
| 교육 | 10.5 | 9.7 | 9.3 | -1.2 |
| 음식·숙박 | 12.9 | 12.9 | 12.8 | -0.1 |
| 기타 | 8.2 | 8.3 | 8.5 | 0.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2) 증감은 2020년과 2013년 비중 차이.

5) 엔겔계수란 가계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의 비중.

4.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보건비, 주거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 도모,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필요
 - 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특히 노동은 자본에 비해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노동력의 산업 간 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정부는 산업별 노동수급전망을 통하여 노동력의 산업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도모
 - 인구 고령화로 보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고령 가구의 보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정책 도입이 필요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빈곤층 해결을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
 -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 주택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이자비용 부담 축소 등으로 주거유지비 부담을 완화
 -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대해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융자 자금 확대, 주거 관련 난방비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을 고려해 볼 필요
 - 고령화가 진전되면 향후 경제성장률이 고령친화산업 산업의 성장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분야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주력
 -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소득증가와 소비활력 증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
 - 고령친화제품인 기기용품, 주택, 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 및 건강지원서비스 분야 등을 육성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1 > 재화의 수요 전망 모형

○ (분석방법) 인구구조와 소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화의 수요를 전망

- 분석모형은 OECD(2005년)⁶⁾에 소개된 재화의 수요 전망(Projected demand)을 이용하여 분석
 - 연령별로 소득, 평균소비성향, 가구수 전망, 품목별 소비 비중,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각 재화의 수요를 추정
 - 각 재화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품목별 소비 비중의 변화를 추정하고 가구수 연령 변화 등 인구효과를 고려

< 재화의 수요전망 분석모형 >

$$\text{품목별 수요}_t = \sum_i (\text{처분가능소득})_{it} \times \left(\frac{\text{소비}}{\text{처분가능소득}} \right)_i \times \left(\frac{\text{품목별 소비}}{\text{소비}} \right)_{it} \times \text{가구수}_{it}$$

① 소득 ② 평균소비성향 ③ 품목별 소비 비중 ④ 가구수

-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장래가구추계 등을 이용
 - 연령별 가계의 소득은 가계 1인당 소득 전망치⁷⁾와 통계청의 가구원수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2013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현재의 평균소비성향이 유지된다고 가정
 - 품목별 소비 비중은 각 재화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여 산출
 - 연령별 가구 분포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0년)와 동일하게 변화해 간다고 가정

< 분석자료 내역 >

| 변수명 | 자료 출처 | 자료 |
|------------|-----------------|----------------------------------|
| 1인당 소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1인 이상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 가구원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 가구원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전망과 동일하게 변화 |
| 평균소비성향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1인 이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비성향 |
| 연령별 가구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 가구 구조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전망과 동일하게 변화 |
| 품목별 소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1인 이상 전체가구의 품목별 소비 |

6) OECD(2005),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

7) 가계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과거 추세치인 3.8%를 가정하였음. 과거 추세치는 최근 7년(2006~2013년 3.8%), 최근 5년(2008~2013년 3.8%) 등 분석 기간을 변경하여도 큰 차이가 없었음.

< 부록-2 > 가계동향조사 품목별 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
| 식료품 ·비주류음료 |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 교통 |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
| |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 | 통신 |
| | 주류·담배 | 주류 담배 | 오락·문화 |
| 의류신발 |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 |
| 주거·수도·광열 |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 교육 | 식사비 숙박비 |
|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 | |
| | 보건 |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 기타 상품서비스 |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 구 분 | | 2013 연간 | 2014 | | | | 2015 연간(E) | |
|--------------|------------|------------|--------|-------|-------|-------|---------------|-------|
| | | | 1/4 | 2/4 | 3/4 | 연간(E) | | |
| 국민 계정 | 경제성장률(%) | 3.0 | 3.9 | 3.5 | 3.2 | 3.6 | 3.6 | |
| | 민간소비(%) | 2.0 | 2.5 | 1.5 | 1.5 | 2.3 | 2.8 | |
| | 건설투자(%) | 6.7 | 4.3 | 0.2 | 2.6 | 1.9 | 3.0 | |
| | 설비투자(%) | -1.5 | 7.3 | 7.7 | 4.3 | 5.7 | 5.1 | |
| 대외 거래 | 경상수지(억 \$) | 799 | 151 | 241 | 227 | 800 | 680 | |
| | 통관 기준 | 무역수지(억 \$) | 441 | 52 | 149 | 91 | 433 | 426 |
| | | 수출(억 \$) | 5,596 | 1,376 | 1,457 | 1,421 | 5,770 | 6,023 |
| | | 증감률(%) | (2.1) | (1.7) | (3.2) | (3.9) | (3.1) | (4.4) |
| | | 수입(억 \$) | 5,156 | 1,323 | 1,308 | 1,331 | 5,336 | 5,597 |
| | | 증감률(%) | (-0.8) | (2.0) | (3.2) | (5.6) | (3.5) | (4.9)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1.3 | 1.1 | 1.6 | 1.4 | 1.7 | 1.9 | | |
| 실업률(%) | 3.1 | 4.0 | 3.7 | 3.3 | 3.6 | 3.4 | | |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